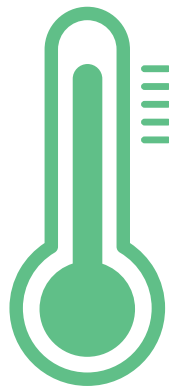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이슈 페이퍼 2023-①】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

| 연구보고서 |



【아동·청소년 이슈 페이퍼 2023-①】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

연구책임 / 김도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Ⅰ 목차

I. 서론	7
II. 선행연구 고찰	11
1. 기후위기와 아동·청소년	13
2.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18
III. 조사 및 분석 방법	21
1. 조사 방법	23
2. 자료 분석 방법	26
IV. 조사 결과	27
1.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	29
2.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실태	33
V. 결론 및 제언	51
참고문헌	55
부록	57

Ⅱ 표목차

[표 3-1] 조사 개요	23
[표 3-2]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24
[표 3-3] 조사 문항 구성 내용	25
[표 4-1] 집단별 기후위기 및 기후정의 관련 인식	30
[표 4-2]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동의 여부	31
[표 4-3] 기후위기로 인해 침해받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중복응답)	31
[표 4-4]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필요성	32
[표 4-5] 정부/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	32
[표 4-6]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33
[표 4-7]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34
[표 4-8]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별 경험률	36
[표 4-9]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기타 응답)	38
[표 4-10]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시작 시기	38
[표 4-11] 아동·청소년의 자발성 및 주도성	39
[표 4-12]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변화가능성	41
[표 4-13]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유형화 기준	42
[표 4-14]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별 특성과 유형	42
[표 4-15]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	45
[표 4-16]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필요 사항(기타 응답)	48

| 그림목차

[그림 2-1] 전 지구 평균 기온(23.08.13.)	13
[그림 2-2] 우리나라의 아동 기후위기 지수	17
[그림 2-3] 우리나라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 현황 및 전망	17
[그림 4-1] 기후위기 및 기후정의 관련 인식	30
[그림 4-2]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일상적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35
[그림 4-3]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사회적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35
[그림 4-4]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정치적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36
[그림 4-5]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요인	46
[그림 4-6]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저해 요인	47
[그림 4-7]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필요 사항	48



서론

I. 서론

UN의 기후변화 감시기구는 올해 7월을 “측정 이래 가장 더운 7월로, 역사상 이렇게 더운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유엔의 사무총장 역시 7월 27일,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¹⁾. 우리나라 또한 ‘끓는(boiling) 듯한’ 찜통더위 속에 올 여름을 보내야 했다. 2023년 8월 12일 기준, 전국의 폭염일수는 11.6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전국 폭염일수인 10.6일을 넘어섰으며²⁾, 통상 폭염이 9월까지도 지속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³⁾. 온열질환자 수도 올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5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672명, 추정 사망자는 31명으로,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수치에 해당했다⁴⁾.

또 다른 문제는 폭염 이외의 피해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여름 최악의 더위를 경험하는 가운데 찾아온 폭우와 태풍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5년간 7월을 두고 비교하면 올해 최다 강수일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⁵⁾. 7월 한 달 중 비가 온 일수가 20일 가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기록이 아니다⁶⁾. 반복적이고 이례적인 폭우에 인명 피해, 도로 침수, 각종 재산 피해 등 다양한 피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UN이 경고했던 것과 같이, 올여름 우리가 경험한 피해는 국내에만 한정된 현상이 결코 아니다. 중국은 일주일 간의 폭우로 인해 1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⁷⁾, 일본은 이상고온현상이 이어지며 낙농업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또한 허리케인, 홍수, 심각한 가뭄과 더위, 산불 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며 피해를 감당해야 했고⁸⁾, 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남극과 북극은 지구가 끓는 동안 빙하가 더 급속도로 녹아내리며 해빙 면적이 내려가면서, 서식하고 있던 펭귄의 새끼 약 1만 마리가 숨진 채 발견 되는 등⁹⁾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빙하의 손실은 다시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며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1) “‘역사상 가장 더운 달’…‘지구 열대화 시대’ 개막”, (MBC뉴스, 2023.07.28.).
2) “[박상욱의 기후 1.5] 폭염 직후 찾아온 태풍…온난화 넘어 끓는 지구가 보낸 경고”, (JTBC뉴스, 2023.08.14.).
3) “폭폭 찜 무더위에 올해 ‘폭염일수’ 19일…역대 최악 2018년 넘어설까”, (이투데이, 2023.08.27.).
4) “폭염에 폭우까지…유난히 힘들었던 파고다 노인의 여름”, (아시아경제, 2023.09.03.).
5) “폭염에 폭우까지…유난히 힘들었던 파고다 노인의 여름”, (아시아경제, 2023.09.03.).
6) “이번 주는 폭우 다음 주는 ‘폭염’…커지는 기후위기, 다가온 기후재난”, (부안독립신문, 2023.07.28.).
7) “中, 일주일간 폭우로 100명 넘는 사망·실종자 발생”, (세계일보, 2023.08.11.).
8) “한여름엔 폭염 피해 핫카이다? 최고 37.1도… 38일간 폭폭 찜다[특파원 생생리포트]”, (연합뉴스, 2023.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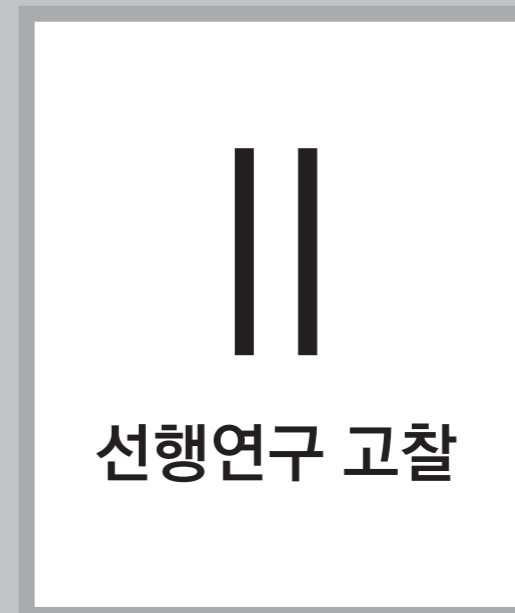
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¹⁰⁾.

이러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관련하여 1960년대부터 기후과학자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일깨우기 위해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지구환경이 기후위기, 기후재해, 기후재난을 넘어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이 되고 있다고 설명 한다(박정희, 2022)¹¹⁾. 이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21년 2월,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¹²⁾.

기후위기 논의가 발전하면서 함께 이야기되는 또 다른 용어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이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다(박병도, 2013). 이때 주목을 받는 집단은 바로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로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더 오래 노출되게 된다. 조호제(2020)는 이에 대해 과거 및 현재 세대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자원을 낭비하고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한 결과를 미래 세대가 떠안게 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일반논평 제26호: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아동 권리와 환경」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은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이에 대응하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거나 대응활동이 진행되거나, 평가하는 경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견 및 평가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 측면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이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역으로써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조명해 보고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기후위기와 아동·청소년

2.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9) "[기후변화는 지금] 남극 빙하 녹아 황제펭귄 떼죽음...금세기말 멸종 경고", (사이언스조선, 2023.08.25.).

10) "유엔 "기후변화 4대 지표 역대 최악...기후 재앙 가까워져"", (연합뉴스, 2022.05.18.).

11) "[지금은 기후위기] 변화(Change)→위기(Crisis)→이젠 재앙(Disaster)으로", (2022.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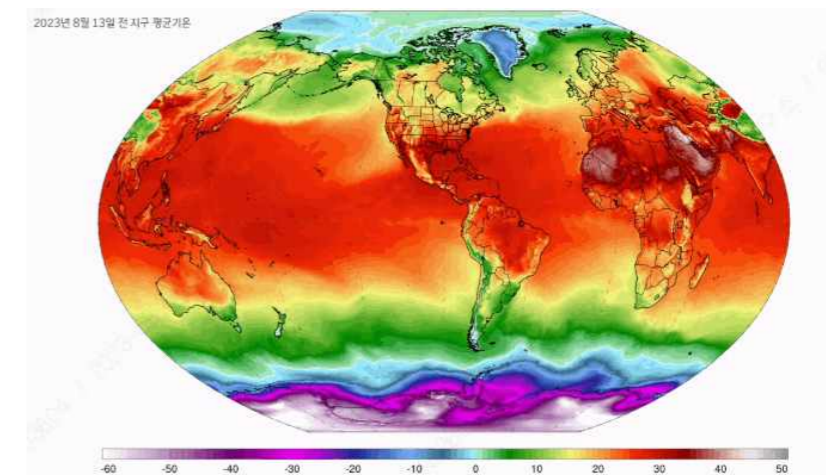
12) "빌 게이츠 "기후재앙 사망자가 코로나19보다 많아질 것"", (한국경제, 2021.02.15.).

II.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실태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후위기와 아동·청소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1. 기후위기와 아동·청소년

1)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출처: JTBC(2023)

[그림 2-1] 전 지구 평균 기온(23.08.13.)

앞서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세계는 이제껏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악영향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의미 한다¹³⁾.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1960

년대부터 기후과학자들은 꾸준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며 본격적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배기완 외, 2021).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일깨우기 위해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¹⁴⁾. 최근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지구환경이 기후위기, 기후재해, 기후재난을 넘어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이 되고 있다고 설명 한다(박정희, 2022).

최근 하와이의 마우이섬은 지역의 80%가 산불로 잿더미가 되는 최악의 참사를 경험했다¹⁵⁾. 이 최악의 참사 역시 원인은 ‘기후위기’였다. 하와이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이 극심해졌고, 폭염과 함께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며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산불 역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호주에서, 2021년 로키산맥에서 유사한 재난을 경험했으며, 당시에 그 원인은 ‘기후위기’였다(박정희, 2022).

홍수로 인한 참사도 마찬가지이다. 9월 13일,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 ‘다니엘’은 리비아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렸고, 결국 리비아 동북부의 도시 데르나의 외곽에 있던 댐 2곳이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대홍수에 데르나 전체가 물에 휩쓸렸고, 현재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과 함께 최악의 홍수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¹⁶⁾. 그리고 역시 이번 참사의 원인에도 ‘기후위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는 “폭풍 다니엘은 기후변화가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재앙적인 영향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¹⁷⁾.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기후위기로, 이제는 기후재앙으로까지 강조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들 또한 꾸준히 이어져왔다. 1988년 11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의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창설되었다. IPCC는 전 세계 3천여 명의 기상·해양과학자, 경제학자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간 협의체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구 환경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종합적 연구결과에 관한 종합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를 1990년부터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 8월 발간된 제6차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며, 탄소 배출을 저감하더라도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온전히 막을 수 없다는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며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배기완 외, 2021).

또한 IPCC의 제5차 보고서(2014년)는 지난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의 시초라고 할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15) “‘100년 만에 최악 참사’…현실이 된 ‘기후 재앙’”. (SBS, 2023.08.14.)
16) “‘댐붕괴 홍수참사’ 리비아 데르나 시장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 (연합뉴스, 2023.09.14.)
17) “‘대홍수’ 장비·인력 부족에 더딘 복구…UN “기후변화의 재앙적 영향””. (KBS뉴스, 2023.09.14.)

수 있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협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국제조약 중 하나이다¹⁸⁾. 또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관련 조약 중 최초로 인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리협정의 전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성 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간 형평뿐만 아니라 인권, 건강권, 원주민·지역공동체·이주민·아동·장애인·취약계층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고려하여야 한다.”

- 파리협정 전문 中

기후변화 관련 조약인 파리협정의 전문에 인권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이러한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박병도, 2013; 박정희, 2022). 이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관점으로 설명되는데, ‘기후정의’는 기후로부터 소외되고 고통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때 기후변화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은 사람 및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민감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성’ 개념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을 기후변화에 의해 인권 실현을 위협하는 1차적 원인으로 보면서 취약성을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성의 정도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복원력) 또한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차별화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세대간의 불평등 문제로 나아간다. 현 세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산업 활동의 혜택을 누리고,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박병도, 2013; 조호제, 2020).

2) 기후위기와 아동·청소년¹⁹⁾

“우리의 자유, 삶의 자유와 건강을 주세요. 우리는 당신[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삶을 즐길 수 없어요.”
“어른들! 환경 파괴의 진정한 희생자는 우리들이에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초안 작성을 위해 상담에 참여한 아동²⁰⁾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가 오는 9월 발표하고자 하는 「일반논평 제26호: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아동 권리와 환경」의 초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동의 목소리는 앞서 설명한 세

18)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03_policy/policy02_04.php (검색일: 23.09.06.)
19)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개념은 연령적으로 중첩되는 개념으로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이혜원, 2016).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20)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초안):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아동 권리와 환경」의 ‘I. 소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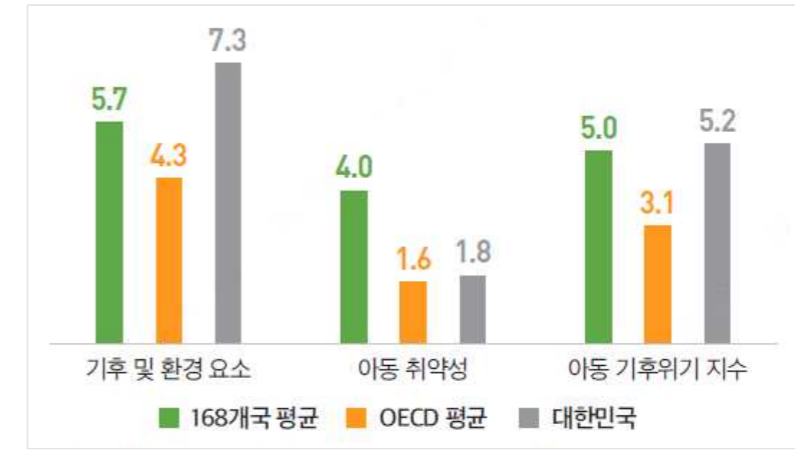
대 간의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CRC는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자 지난 2년간 100여 개국의 아동 약 1만6천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일반논평 제26호」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가 함께 아동 논의를 진행하여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 기후정의 논의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피해의 당사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와 불평등,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일고 있다.

UNICEF(2023)에서도 최근 기후변화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위험이 다르게 야기할 수 있음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후로 인한 위험에 특히 여성과 아동이 취약함을 보여주면서 이들에 대해 고려하며 사회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그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취약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우울증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¹⁾. 특히 어린 시절부터 폭염, 집중호우, 가뭄,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이상기후와 현상에 노출되며 기후 변화를 체감해 온 아동·청소년, 그리고 청년에게 기후 우울증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obe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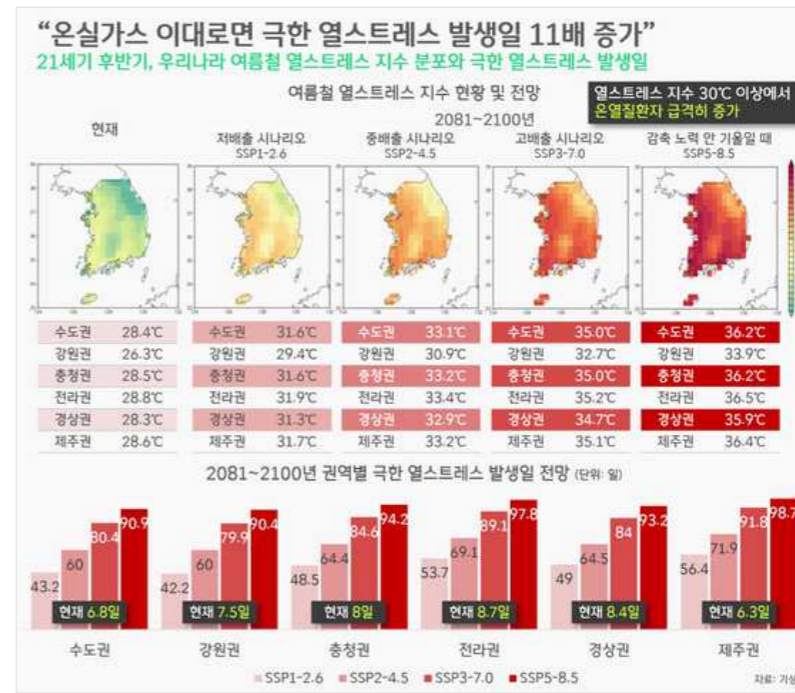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또한 기후위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UNICEF는 지난 2021년 8월, 전 세계 163개 국가별 ‘아동 기후위기 지수(Children’s Climate Risk Index, CCRI)’를 발표했다²²⁾. CCRI는 크게 ‘기후 및 환경 요소’ 점수와 ‘아동 취약성’ 점수로 구성되는데, ‘기후 및 환경 요소’는 국가 내에서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위험, 충격, 스트레스 등에 아동이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아동 취약성’은 기초적인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기후 및 환경적 위협에 노출된 아동 보호에 취약한 정도를 의미한다(이요바, 2023에서 재인용; Unicef, 2021). [그림 2-2]와 같이 우리나라의 CCRI 점수는 5.2점으로 전 세계 163개국 평균 5.0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OECD 38개국 평균 점수(3.1점)와 비교하면 2.1점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이요바, 2023).

기후 부정의(climate injustice)²³⁾의 문제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림 2-3]을 보면 21세기 후반인 2081년과 2100년에는 현재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최소 약 3.2도에서 최대 7.8도 가량 높아지고, 이에 따라 극한의 열스트레스 발생일이 최대 11배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세대도 경험해야 할 미래이지만,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미래를 더 길게,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자신들이 경험해야 하는 미래의 환경을 만들어갈 기회는 없었고, 현재 세대가 만들어낸, 만들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에 대해 부담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무기력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감정이 아니다.

21) “100년 만에 최악 참사”...현실이 된 '기후 재앙', (SBS, 2023.08.14.)
 “환경운동 무슨 소용 있나”... '기후 우울증' 앓는 2030", (서울신문, 2023.08.14.)
 22) “세계 어린이 10억명, 기후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 (한겨레, 2021.08.23.)
 23) ‘기후부정의’란 ‘기후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나 상황’으로, 자연을 이용해 물질적 풍요를 누린 현재세대와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짊어질 미래세대와의 불평등 문제로까지 확장 가능한 개념이다(박병도, 2013).



출처: 이요바(2023)에서 재인용; UNICEF(2021)
 [그림 2-2] 우리나라의 아동 기후위기 지수



출처: JTBC(2023)
 [그림 2-3] 우리나라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 현황 및 전망

2.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1)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²⁴⁾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데에는 스웨덴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를 빼놓을 수 없다. 2008년생인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4) 연설에서 “전 세계 190개 국가 대표들이 비어 있는 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라며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다시 한번 연설을 통해 미래세대를 대표해 기성세대와 주류 정치인을 겨냥,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연설뿐만 아니라 그는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 파업’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의 연설과 시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청소년에게 확산되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는데 영향을 미쳤다(최규연, 2021; 하지훈·윤순진, 2022; 황세영 외, 2022).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청년이 기후변화에 있어 갖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었다(최규연, 2021).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이를 인정받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아동에 대한 ‘오해’가 작용한다. 아동은 미숙하고, 무능하며, 어른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존재로 오해받고, 이는 아동의 참여를 억제하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어른이 주도하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활용된다(이재연 외, 2018). 유럽연합의 청년 단체인 ‘기후 세대 유럽(Generation Climate Europe)’과 ‘CEE 뱅크워치 네트워크(CEE Bankwatch Network)’는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이행에서 청소년들이 핵심 관계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우 단편적인 형태로 이미 완성된 계획안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거나 아예 청소년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황세영 외, 2022). 아동과 청소년을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된 장애 명목상으로 참여시키거나 ‘장식’처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Hart, 1997).

하지훈·윤순진(2022)은 기후위기의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자신의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다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러한 활동은 당연히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몇

24) 본 연구에서는 황세영 외(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실천 행동과 참여 노력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실천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기후문제를 연결 지어 인식하는 것, 사회적·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정치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사례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촉발에 그레타 툰베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한 바와 같이,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가장 빠르게 전개되었다. 유럽의 청소년들은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신들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후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단체인 ‘기후 세대 유럽(Generation Climate Europe)’을 2019년에 설립하기도 하였다. 해당 단체는 47개 유럽 국가 내 460개 청년 단체들을 대표하는 9개 단체들이 조직한 유럽 규모의 첫 환경 단체로, 유럽연합의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황세영 외, 2022).

미국에서도 유사한 시기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리하며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보도됐다²⁵⁾. 2020년 소송 제기 당시 만 5~18세였던 원고 16명은 몬태나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심화시켰다며 주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3년 만인 최근 재판부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처음이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환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청소년 기후 행동’ 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후 위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황세영 외, 2022). 약 500여 명의 청소년이 2019년 3월 15일을 시작으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수차례 참여했으며,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후정의행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동참하고 있다²⁶⁾. 기후 소송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 기후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2030년으로 미룬 것, 즉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13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16일, 같은 해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하지훈·윤순진, 2022)²⁷⁾. 이와 같은 정치적 활동 이외에도, 최근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혹은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기후위기에 관한 생각을 작성한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사

25) “‘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인정’ 미래 세대, 기후소송 이겼다”, (경향신문, 2023.08.15.)

26) “마른 잎 다시 살아나듯 일어난 ‘기후정의’ 시민들…‘연결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넘는 힘’”, (경향신문, 2023.09.23.)

27) “청소년 기후소송…현실이 된 미래, 다가온 미래, 다가올 미래”, (한겨레, 2023.10.05.)

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 아동·청소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²⁸⁾.

또한 전해숙 외(2021)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또한 자주 접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정부나 기업에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하면서도 무엇보다 ‘나’부터라도 먼저 기후변화 위기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통한 환경쓰레기 줄이기, 자원 낭비 줄이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 쓰기, 음식물 줄이기, 분리수거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자전거 타고 다니기, 이면지 사용하기 등의 실천들이었다(전해숙 외, 2021).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은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비해 비교적 주목 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은 ‘기후시민(climate citizen)’²⁹⁾의 기본적인 자질로 매우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자 운동이다(이찬원, 2022).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비롯되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며, 가장 작은 실천 같지만 ‘아래에서부터 위로’ 변화를 도모하는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발표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6호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일반논평 제26호의 작성을 위해 103개국 약 7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FGI,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2022년 4월 20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양의원영 국회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아동 참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³⁰⁾. 해당 토론회에는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1명,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3명, 2021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소속 아동 3명, 총 7명의 아동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후위기와 아동권리’라는 주제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토론회 이전에 서면으로 관련 질문을 받아 자신들의 생각을 기술하여 제출했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초안이 작성된 이후인 2023년 2월 14일에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 4명이 다시 한번 초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노력들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쉽게 과소평가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관련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이 실천하고 있는 노력들을 조사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28)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아동 모여라!’... 세이브더칠드런,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워크 개최”, (베이비뉴스, 23.04.07.)

“환경 유튜브 찍고, 에어컨 26도 지키고... ‘우리 기후위기 구조대’”, (문화일보, 23.05.03.)

“기후피해 가장 큰 아동, 정책엔 소외”, (한겨레, 23.05.03.)

“굿네이버스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4기 기후 위기 연대”, (연합뉴스, 23.07.21.)

“어린이들 ‘기후변화는 명백한 아동권리 침해’”, (크리스천투데이, 23.08.04.)

“원당산 청소년들 ‘우유팩으로 환경과 사랑을 지킨다’”, (광주드림, 2023.08.24.)

“‘병뚜껑 모아’...기후위기에 환경운동 직접 나선 청소년들”, (노컷뉴스, 2023.08.25.)

29) ‘기후시민’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방식을 바꾸고 주위 사람들에게 동참을 권유하며 성찰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적·제도적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다(이찬원, 2022).

30)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토론회 개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2.04.22.)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2. 자료 분석 방법

Ⅲ.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만 7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은 법체계에서 각 법의 지향이나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구분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영)유아로 별도로 구분된다(이소희, 2018; 김희진,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함께 고려하여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의 학령기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20일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학령기 연령 및 성별 구분에 따른 할당 표집으로 연령 집단별로 할당한 뒤 각 집단 내에서 성별 비율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할당하는 작업을 거쳤다. 두 번째는 의도적 표집으로 주제의 특성 상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 등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표 3-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조사 기간	2023년 7월 26일(수) ~ 8월 15일(화) (약 20일)
조사 방법	조사대행업체를 통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비확률적 표집(의도적 표집 및 할당 표집)

2) 조사 대상

위와 같은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총 441명의 아동·청소년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9.0%, 51.0%로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이나, 학령기 연령을 기준으로 나눈 연령 집단에서는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조사의 한계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조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참여 동의를 얻은 이후 다시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만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 이로 인해 조사에 참여하고자 유입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수 자체는 적지 않았으나, 조사 기간 내에 본 조사까지 완료된 경우가 많지 않아 다른 연령에 비해 적은 응답을 보이게 되었다. 재학여부에 따른 구분에서는 95.7%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재학 중이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구분에 따라 중소도시 52.8%, 대도시 39.9%, 농산어촌(소도시) 7.3%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표 3-2]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명)	비율(%)
성별	남성	216	49.0
	여성	225	51.0
	합계	441	100.0
연령	만 7세 ~ 만 12세	12	2.7
	만 13세 ~ 만 15세	118	26.8
	만 16세 ~ 만 18세	311	70.5
	합계	441	100.0
재학여부	학교에 다니고 있음(휴학/방학 포함)	422	95.7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음	19	4.3
	합계	441	100.0
거주 지역 ³¹⁾	대도시	176	39.9
	중소도시	233	52.8
	농산어촌(소도시)	32	7.3
	합계	441	100.0
합계		441	100.0

3) 조사 내용

조사 문항은 <표 3-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응답에 따라 부가적으로 응답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크게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현황,

31)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건강보건통계」의 '거주 지역' 구분을 참고하여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시/구는 '대도시'로, 그 외의 시는 '중소도시'로, 군은 '농산어촌(소도시)'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후위기 관련 인식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 정도,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정의 인식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부/국가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현황에서는 일상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어떤 활동을 경험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작 시기와 빈도가 언제인지 추가적으로 질문했고, 활동에서의 자발성과 주도성, 그리고 해당 활동의 실제 변화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조사 문항의 구성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아동·청소년의 참여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으며,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 내부 연구자들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 문항의 대다수는 객관식으로, 10번과 14번 문항만 주관식으로 구성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표 3-3] 조사 문항 구성 내용

구분	설문내용	문항 수 (개)
기후위기 관련 인식	1.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7
	2.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3. 기후위기가 특히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나요?	
	4.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나요?	
	4-1.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나요?	
	5. 우리나라 정부/국가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현황	6.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2
	7.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7-1.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7-1-1. 활동 시작 시기는 언제인가요?	
	7-1-2. 스스로 하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했나요?	
	7-1-3. 얼마나 자주 활동에 참여했나요?	
	7-1-4. 어른들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활동이었나요?	
	7-1-5. 활동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8. 아동·청소년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8-1.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8-1-1. 활동 시작 시기는 언제인가요?	
	8-1-2. 스스로 하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했나요?	
	8-1-3. 얼마나 자주 활동에 참여했나요?	
	8-1-4. 어른들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활동이었나요?	
	8-1-5. 활동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9. 아동·청소년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구분	설문내용	문항 수 (개)
	9-1.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9-1-1. 활동 시작 시기는 언제인가요?	
	9-1-2. 스스로 하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했나요?	
	9-1-3. 얼마나 자주 활동에 참여했나요?	
	9-1-4. 어른들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활동이었나요?	
	9-1-5. 활동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0. 이 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요인 및 필요 사항	11.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12.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타	14.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1
총 문항 수		33

2. 자료 분석 방법

조사는 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진행되었으며,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및 기후위기 대응 활동 관련 커뮤니티 내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 결과는 문항별로 분석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유형화하고 질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은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사례중심의 질적 분석과 변수중심의 양적 분석을 통합하기 위해 개발된 시도로,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비교연구의 틀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양적 분석과 비교하면, 결합된 요인들의 인과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인과적 복합성을 살펴볼 때 연구자에게 더 많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가 주어져서, 변수보다는 사례를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비교연구방법론에 비교하여, 연구자가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이론에 기반하여 여러 해석을 시도하고자 할 때 강점을 가진다(이승윤, 2014). 본 연구에서는 양적으로 조사된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특성들을 조합하여 유형화하고, 그 유형들 간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질적 해석을 이끌고자 하여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을 참고하였다. 다만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연구방법이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론(set theory)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간략한 방법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승윤(2014)의 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1.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
2.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실태

IV. 조사 결과

1.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이전, 조사 참여자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기후위기 및 기후정의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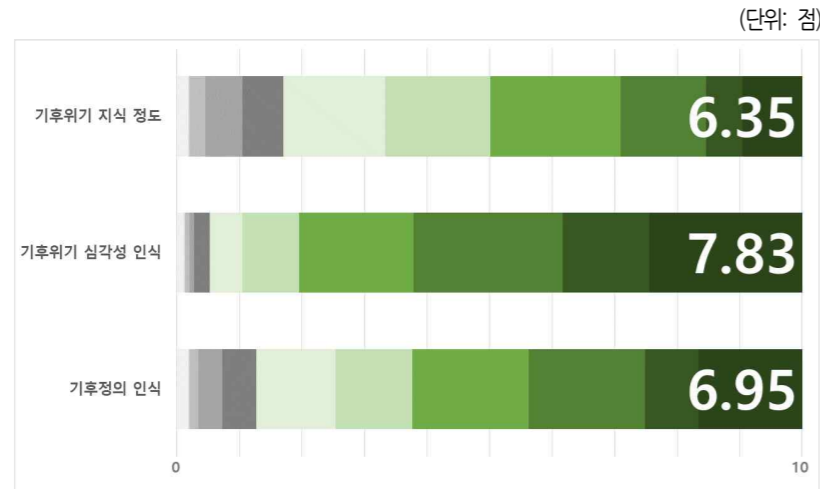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6.35점으로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고, 해당 교육을 수강한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것에 비하면 점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3년 3월 1일부터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되었다³²⁾.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신동훈 외(2023)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90.9%가 기후위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 기존 교육 내용의 점검 및 평가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 또한 동일하게 10점 척도로 질문했는데, 이는 평균 7.83점으로 대부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5월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2 아동 권리 인식조사」에서도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기후변화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심각하다’는 응답이 43.2%, ‘보통’이라는 응답이 43.5%,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3.3%로 조사가 되었다³³⁾. 본 조사의 응답 비율

32) “2023학년도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교원 사례나눔’ 실시”. (서울교육소식, 2022.12.19.)

과 이를 비교했을 때, 0~4점까지의 응답이 5.2%, 5~10점까지의 응답이 94.8%로 비교적 유사하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가 특히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 '기후정의' 인식을 10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 참여자들은 평균 6.95점으로 응답하여 기후정의에 관한 인식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 기후위기 및 기후정의 관련 인식

위의 전반적인 인식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점수를 두고 비교했을 때, 우선 여성 참여자가 남성 참여자에 비해 주관적인 기후위기 지식 정도,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기후정의 인식 모두 점수가 높았다. 연령으로는 만 15세 이하 연령이 기후위기 지식 정도가 미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과 기후정의 인식에서는 만 16세에서 만 18세 이하 연령의 조사 참여자가 비교적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기후위기 지식 정도는 대도시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기후위기 심각성에 관한 인식과 기후정의 인식은 모두 농산어촌(소도시)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4-1] 집단별 기후위기 및 기후정의 관련 인식

질문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만 7세 ~만 15세	만 16세 ~만 18세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기후위기 지식 정도	6.35	6.23	6.46	6.38	6.33	6.47	6.26	6.28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7.83	7.47	8.16	7.81	7.83	7.76	7.83	8.19
기후정의 인식	6.95	6.70	7.19	6.69	7.06	7.14	6.74	7.50

33) “어린이 5명 중 2명은 “기후변화 걱정돼요””, (남도일보, 23.05.03.)

2)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다음으로는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51.7%,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집단별로는 성별에선 여성이, 연령에서는 만 7세에서 만 15세가, 지역에서는 농산어촌(소도시) 집단에서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표 4-2>).

[표 4-2]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동의 여부

질문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만 7세 ~만 15세	만 16세 ~만 18세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침해한다	51.7	46.8	56.4	53.1	51.1	48.9	52.4	62.5
침해하지 않는다	48.3	53.2	43.6	46.9	48.9	51.1	47.6	37.5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선택지로 구성된 문항들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아동 권리와 환경' 초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침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 참여자들은 건강권 79.4%, 생명권 74.1%, 생존권과 발달권 61.8% 순으로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놀 권리 46.9%, 사회권과 기본권 42.1%, 교육권 33.8%, 평등권 11.0%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참여권 9.6%과 표현권 9.2%은 10% 미만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표 4-3] 기후위기로 인해 침해받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중복응답)

구분	응답자 수	응답 비율
건강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181	79.4
생명권: 생명을 유지할 권리	169	74.1
생존권과 발달권: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	141	61.8
놀 권리: 휴식, 놀이, 여가를 누릴 권리	107	46.9
사회권, 기본권: 적절한 생활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	96	42.1
교육권: 교육을 제공받고, 교육 환경이 갖춰질 권리	77	33.8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25	11.0
참여권: 어떤 일에 자발적이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2	9.6
표현권: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21	9.2
기타	1	0.4
전체 응답자 수	228	100.0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31.1%와 그렇지 않다 58.3%는 응답이 전체의 89.4%로 전체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필요성

구분		응답자 수	응답 비율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그렇지 않다.	44	10.0
	그렇다.	257	58.3
	매우 그렇다.	137	31.1
전체 응답자 수		441	100.0

3) 정부/국가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에 관한 인식

본 조사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6호를 참고하여 정부/국가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해 이에 관해 조사 참여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역할이 4점을 만점으로 2점을 상위하였고, 이러한 점수의 평균은 2.44점이었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고(2.39점), 자원을 사용하는 역할(2.37점)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환경 및 기후위기 관련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역할(2.37점)과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역할(2.28점) 등 아동·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평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2.32점) 또한 비교적 낮게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정부/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

구분	응답 평균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인식을 퍼뜨리는 역할	2.59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함께 노력하는 역할	2.58
기후 재난이나 재해로 겪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예방하는 역할	2.55
환경 및 기후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역할	2.51
기업이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막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2.47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이나 제도, 기준을 만들고 강하게 높이는 역할	2.39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환경, 인력, 기술, 제도, 정보 등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역할	2.37
환경 보호나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2.37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	2.32

구분	응답 평균
환경이 아동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역할	2.28
전체 응답 평균	2.44

2.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실태

앞서 조사 참여자들의 기후위기 관련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기후위기에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1)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경험 및 특성

(1)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경험

본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대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전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을 나열하고, 조사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 4-6>과 같이 일상적/사회적/정치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거쳤다.

[표 4-6]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구분	활동 내용	합계
일상적 활동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8
	분리수거를 한다.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컵을 사용한다.	
사회적 활동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14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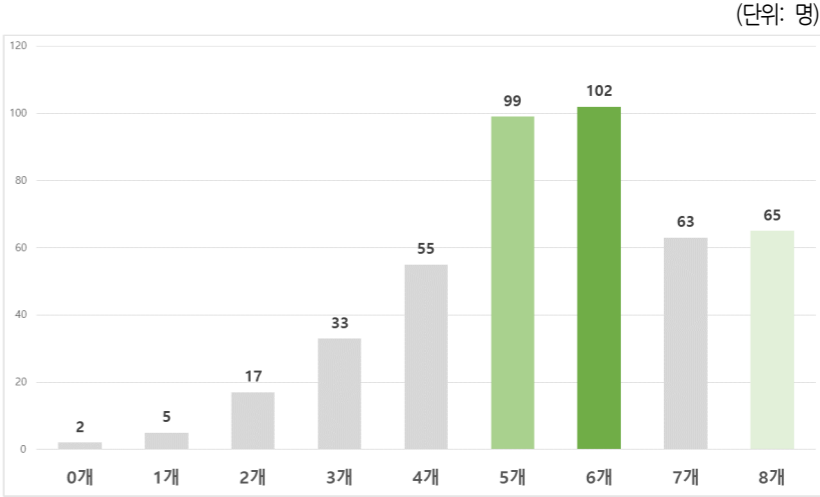
구분	활동 내용	합계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8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30	
전체 활동 수		

우선 30개의 전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 아무런 활동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 441명 중 1명(0.2%)으로, 거의 모든 참여자(99.8%)가 한 가지 이상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이 있는 활동 개수는 6~10개(187명, 42.4%)가 가장 많았고, 21개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명으로 7.5%에 해당했다. 그 중 30개의 활동 모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명(1.6%)으로, 아무런 활동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참여자보다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4-7]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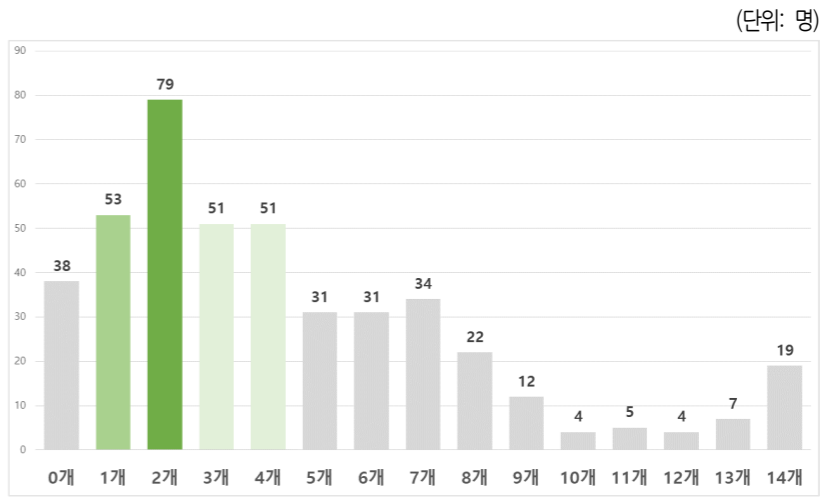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응답 비율	
		(명)	(%)
0개	1		0.2
1~5개	51	11.6	54.0
6~10개	187	42.4	
11~15개	125	28.3	38.3
16~20개	44	10.0	
21~25개	18	4.1	7.5
26~30개	15	3.4	
전체 응답자 수	441		100.0

활동 구분별로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던 활동의 수를 살펴보면, 우선 일상적인 활동 8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활동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명으로 0.5%였다. 다시 말해 이는 약 99.5%의 아동·청소년이 한 가지 이상의 일상적인 활동을 경험한 바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조사에 제시된 일상적 활동 8가지 모두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5명으로 14.7%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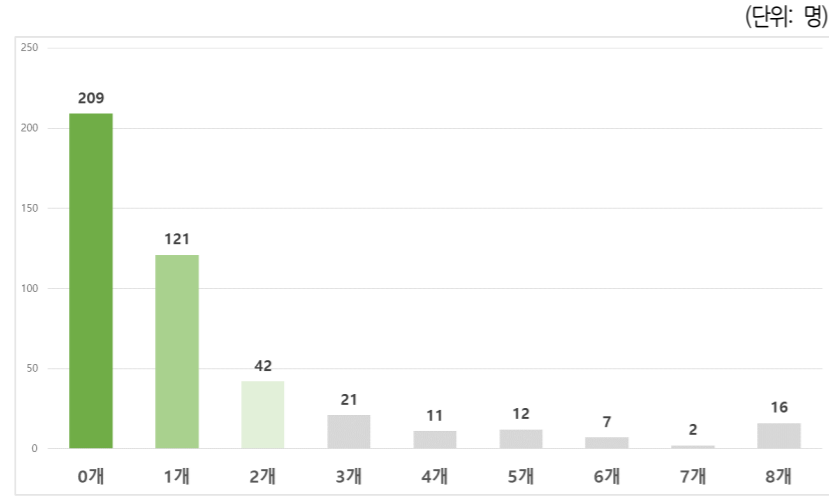
[그림 4-2]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일상적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제시된 14가지의 활동 또한, 조사 참여자 중 8.6%(38명)를 제외한, 91.4%(403명)가 한 가지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8개 중 5~8개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1~4개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4-3]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사회적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 8가지에 대해서는 앞선 두 가지 활동 구분에 비해, 어떤 활동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가 209명(47.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조사 참여자 중 반 이상(52.6%)의 참여자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정치적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림 4-4]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정치적 기후위기 대응 활동 수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은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을까. 각각의 활동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4-8>과 같다. 우선 평균 경험률³⁴⁾은 약 38.6%로, 앞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했던 활동의 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활동 68.8%, 사회적인 활동 31.3%, 정치적인 활동 1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분리수거 하기’ 96.1%, ‘텀블러 및 개인 컵 사용하기’ 85.9%, ‘잔반없이 식사하기’ 79.8%가 가장 경험률이 높았다. 사회적 활동에서는 ‘쓰레기 줍기’ 76.2%, ‘환경 교육 및 강의 듣기’ 58.0%, ‘가족 및 지인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56.2%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활동에서는 ‘환경 파괴 기업 불매 운동’이 38.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기’ 21.8%, ‘정책 제언 및 개선 활동 참여하기’ 16.3%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4-8]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별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활동 내용	응답자 수	경험률
일상적 활동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379	85.9
	분리수거를 한다.	424	96.1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306	69.4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236	53.5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290	65.8

34) 경험률 =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 수/전체 참여자 수)*100

구분	활동 내용	응답자 수	경험률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352	79.8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킵을 사용한다.	284	64.4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155	35.1
평균			68.8
사회적 활동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336	76.2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64	14.5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111	25.2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71	16.1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85	19.3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	256	58.0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59	13.4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56	12.7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106	24.0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133	30.2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60	36.3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248	56.2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79	17.9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167	37.9
	평균		
정치적 활동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72	16.3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47	10.7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42	9.5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38	8.6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55	12.5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96	21.8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70	38.5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36	8.2
평균			15.8
전체 평균		441	38.6

이밖에도 기타 응답을 통해 응답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기타 응답임에도 조사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였는데, 일상적 활동에는 ‘재활용 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제로 웨이스트’, ‘대중교통 이용하기’, ‘걸어 다니기’,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기후위기 피해 관련 조사하기’ 등이 제시되었다. 사회적인 활동으로는 ‘기후위기에 관해 토론하기’, ‘환경단체 후원하기’, ‘관련 주제로 콘텐츠 만들어 게시하기’, ‘교내 및 지역의 관련 봉사 활동 참여하기’ 등의 응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활동으로는 ‘환경을 해치는 국가 사업에 대해 주변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4-9]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기타 응답)

구분	활동 내용
일상적 활동	· 재활용(재사용) 하기 ·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 플라스틱 프리,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 ·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 물, 전기 등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기 · 기후위기 피해에 관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기 등
사회적 활동	· 기후위기에 관해 조사하고 발표 및 토론하기 · 환경단체에 후원 및 기부하기 · 환경 및 기후 관련 카드뉴스, UCC 등을 만들어 게시하기 · 교내 환경 관련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 환경 및 기후 관련 지역 행사나 봉사 참여하기 · 환경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등
정치적 활동	· 환경을 해치는 국가사업에 대해 주변에 알리기 등

위의 활동에 대해 대략적인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조사 참여자들이 각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평균 2018년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2018년으로 가장 빨랐고,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은 대략 2019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이산화되고, 국내에서도 활동이 활발히 일던 시기와 일맥상통한다.

[표 4-10]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시작 시기

(단위: 년)

구분	활동 내용	응답자 수	평균 시작 시기*
일상적 활동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379	2018
	분리수거를 한다.	424	2016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306	2018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236	2019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290	2019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352	2017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컵을 사용한다.	284	2015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155	2019
평균			2018
사회적 활동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336	2018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64	2019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111	2019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71	2019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85	2019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	256	2019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59	2018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56	2019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106	2019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133	2019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60	2018	

구분	활동 내용	응답자 수	평균 시작 시기*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248	2019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79	2020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167	2019
평균			2019
정치적 활동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72	2019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47	2018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42	2018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38	2018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55	2019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96	2020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70	2019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36	2019
평균			2019
전체 평균			2018

*: 소수점 이하 값은 해석을 위해 생략하였음.

(2) 아동·청소년의 자발성 및 주도성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설명할 때 있어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 황여정(2018)은 선행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며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참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능동성’, ‘변화의 도출’, ‘의사결정과정의 공유’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이때 ‘능동성’이란 참여가 타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 보다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변화의 도출’은 참여를 통해 실제 자기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시설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공유’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황여정,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능동성’과 ‘의사결정의 공유’를 확인하고자,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해당 활동을 시작했는지, 또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성과 주도성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응답 비율이 평균 81.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응답 비율 또한 77.5%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했다.

[표 4-11] 아동·청소년의 자발성 및 주도성

(단위: %)

구분	활동 내용	응답자 수	자발성	주도성
일상적 활동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379	88.9	88.1

구분	활동 내용	응답자 수	자발성	주도성
	분리수거를 한다.	424	80.2	77.1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306	69.6	61.8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236	76.7	71.6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290	91.4	89.7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352	84.7	84.4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컵을 사용한다.	284	90.5	85.6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155	74.8	74.8
	평균		82.1	79.1
사회적 활동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336	73.5	72.6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64	85.9	75.0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111	77.5	67.6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71	73.2	63.4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85	70.6	67.1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	256	51.6	48.0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59	69.5	64.4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56	69.6	62.5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106	79.2	79.2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133	72.2	67.7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60	79.4	71.3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248	90.3	88.7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79	78.5	77.2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167	78.4	71.3
	평균		75.0	69.7
	정치적 활동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72	86.1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47	91.5	83.0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42	81.0	71.4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38	92.1	84.2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55	81.8	85.5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96	86.5	88.5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70	91.2	88.8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36	83.3	88.9
평균			86.7	83.7
전체 평균		441	81.2	77.5

(3)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변화가능성

각 활동의 자발성 및 주도성과 함께, 아동·청소년 참여의 주요 개념인 '변화의 도출'을 함께 파악하고자, 실제로 각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경험한 활동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

행되었다. 이에 대해 전체 활동의 평균은 81.1%로 비교적 높은 변화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정치적 활동이 8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적 활동 79.9%, 사회적 활동 77.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변화가능성

구분	활동 내용	응답자 수	변화가능성
일상적 활동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379	90.5
	분리수거를 한다.	424	91.0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306	63.4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236	69.9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290	65.5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352	93.5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컵을 사용한다.	284	87.0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155	78.7
평균		79.9	
사회적 활동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336	91.1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64	81.3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111	83.8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71	70.4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85	77.6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	256	69.9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59	74.6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56	75.0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106	75.5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133	66.2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60	78.8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248	71.8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79	77.2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167	87.4
	평균		77.2
	정치적 활동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72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47	93.6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42	76.2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38	86.8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55	76.4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96	87.5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70	96.5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36	83.3
평균			86.2
전체 평균		441	81.1

2)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유형화 하여 비교, 각 활동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화 작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을 참고한 것으로, 앞선 양적 데이터를 종합하여 이에 대해 질적인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적 데이터를 통한 유형화 기준과, 해당 기준에 따라 조합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유형화 기준

구분		기준 및 내용			
보편성 (Universality)	u	전체 응답자의 참여 경험률 평균값 미만인 경우			
	U	전체 응답자의 참여 경험률 평균값 이상인 경우			
자발성·주도성 (Spontaneity)	s	전체 응답자의 자발성과 주도성 평균값에 모두 미만인 경우			
	S	전체 응답자의 자발성과 주도성 평균값 이상인 경우			
변화가능성 (Possibility of Change)	p	전체 응답자의 활동에 관한 변화 가능성 평균값 미만인 경우			
	P	전체 응답자의 활동에 관한 변화 가능성 평균값 이상인 경우			
구분	보편성	자발성·주도성	변화 가능성	조합 유형	내용
1	u	s	p	usp	세 기준 모두 평균 미만으로 낮은 유형
2	U	s	p	Usp	보편성은 높으나, 자발성·주도성과 변화가능성은 평균 미만인 유형
3	u	S	p	uSp	자발성·주도성은 높으나, 보편성과 변화가능성은 평균 미만인 유형
4	u	s	P	usP	변화가능성은 높으나, 보편성과 자발성·주도성은 평균 미만인 유형
5	U	S	p	USp	보편성과 자발성·주도성은 높으나, 변화가능성이 평균 미만인 유형
6	u	S	P	uSP	자발성·주도성과 변화가능성은 높으나, 보편성이 평균 미만인 유형
7	U	s	P	UsP	보편성과 변화가능성은 높으나, 자발성·주도성이 평균 미만인 유형
8	U	S	P	USP	세 기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은 유형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각 활동을 <표 4-14>와 같이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①~⑧까지 모든 유형에 각각 활동이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별 특성과 유형

구분	활동 내용	보편성	자발성·주도성	변화 가능성	활동 유형
일상적 활동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U	S	P	⑧ USP
	분리수거를 한다.	U	s	P	⑦ UsP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U	s	p	② Usp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U	s	p	② Usp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U	S	p	⑤ USp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U	S	P	⑧ USP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컵을 사용한다.	U	S	P	⑧ USP	

구분	활동 내용	보편성	자발성·주도성	변화 가능성	활동 유형
사회적 활동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u	s	p	① usp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U	s	P	⑦ UsP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u	S	P	⑥ uSP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u	s	P	④ usP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u	s	p	① usp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u	s	p	① usp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	U	s	p	② Usp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u	s	p	① usp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u	s	p	① usp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u	S	p	③ uSp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u	s	p	① usp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u	s	p	① usp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U	S	p	⑤ USp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u	s	P	④ usP
정치적 활동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u	s	p	① usp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u	S	P	⑥ uSP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u	S	P	⑥ uSP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u	s	p	① usp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u	S	P	⑥ uSP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u	S	p	③ uSp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u	S	P	⑥ uSP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u	S	P	⑥ uSP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u	S	P	⑥ uSP

그리고 위의 결과를 다시 각 유형에 따라 분류해 정리하면 아래의 <표 4-15>와 같다.

우선 가장 많은 활동이 분포된 유형은 ① usp 유형으로, 세 기준 모두 평균 아래인 유형에 속한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비교적 자발성과 주도성이 떨어지며, 직접적인 환경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활동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채식, 환경 관련 포럼 및 토론회 등에서 참석, 토론, 발표하기, 환경 관련 강의 진행하기, 환경 관련 기사 작성 및 인터뷰 참여하기, 환경 관련 공모전 참여하기, 생태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기, 환경 관련 캠페인 참여하기,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 참여하기 등이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가지의 활동은 사회적 활동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② Usp 유형은 비교적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경험했으나, 자발성 및 주도성은 부족하고, 직접적인 변화가능성 또한 크게 느껴지지 않는 활동으로 3가지 활동이 이에 분류되었다. 여기에는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및 영상 시청하기, 환경 관련 기사잡지책 읽기, 환경 관련 교육이나 강의 듣기 등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접하는 방식의 활동들이었다.

③ uSp 유형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며, 체감되는 변화가능성 또한 낮은 활동에 속한다. 해당 유형에는 2가지 활동이 분류되었는데, 환경 관련 글 등을 개인 SNS에 게시하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 작성하기가 이에 해당되었다.

④ usP 유형은 체감되는 변화가능성은 크지만, 보편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는 활동 유형에 해당한다. 해당 유형 또한 2가지 활동이 분류되었는데, 환경 관련 캠페인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하기, 환경 관련 오프라인 동아리에서 활동하기였다.

⑤ UsP 유형은 다른 두 기준이 높은 수치인 것에 비해 체감되는 변화가능성만 낮은 유형으로, 보편적이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변화가능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활동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메일 삭제하기, 가족 및 지인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2가지 활동이 분류되었다.

⑥ uSP 유형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변화가능성도 높게 체감하나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유형이다. 해당 유형에는 7가지의 활동이 분류되며 ① usp 유형 다음으로 분류된 활동의 수가 많은 유형이었다. 분류된 활동에는 환경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환경 관련 정책 개선 및 제안하기, 공식적인 환경 단체에서 활동하기,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 기획 및 운영하기, 환경 관련 청원에 서명하기, 환경 파괴 기업 불매하기,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 해결 의견 전달하기가 포함된다. 이 중 6가지 활동이 정치적인 활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UsP 유형은 아동과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체감되는 변화가능성도 높지만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활동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유형에는 2가지 활동이 분류되었는데, 분리수거하기와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었다.

마지막으로 ⑧ USP 유형은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실제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체감되는, 세 기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활동 유형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3가지 일상적인 활동들이 포함되었는데, 텀블러 및 개인 컵 사용하기, 잔반 없이 식사하기, 양치 컵 사용하기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이뤄지는 활동들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써 큰 의미를 갖거나 평가를 받기 어려운 활동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유형의 설명에서와 같이, 이러한 활동들은 오히려 일상적으로,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재평가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 종합하면, 세 가지의 기준 모두 낮게 평가된 유형에는 14개의 사회적인 활동 중 7개가 포함되었는데, 일부는 평가에 대한 해석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치적인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발성과 주도성도 높고, 변화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하나 많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지 못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이

기후위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대응 활동으로써 저평가되는 현실에 반해, 본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세 기준 모두 충족하는 유형은 모두 일상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스스로, 주도적으로 임한다면 기후위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이 담긴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표 4-15]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

(단위: 개, %)

구분	활동 내용	합계	
① usp	일상적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9 (30.0)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정치적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② Usp	일상적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3 (10.0)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③ uSp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2 (6.7)
	정치적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④ usP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2 (6.7)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⑤ UsP	일상적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2 (6.7)
	사회적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⑥ uSP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7 (23.3)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⑦ UsP	일상적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6.7)
	사회적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⑧ USP	일상적	분리수거를 한다.	3 (10.0)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컵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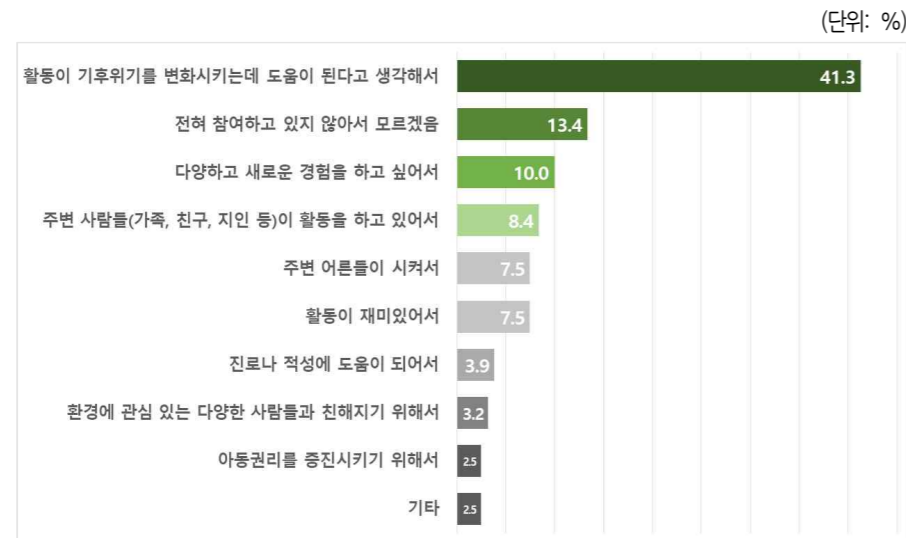
3)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관련 요인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화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왜 참여하는지’ 혹은 ‘왜 참여를 어려워하는지’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및 저해 요인

우선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10.0%, ‘주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8.4% 순으로 응답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해서’ 1.4%, ‘학교에서 시켜서/학교 봉사활동을 위해서’ 0.5%, ‘의무감이 들어서’ 0.2%, ‘필요함을 느껴서’ 0.2%가 있었다.

그러나 변화가능성이 가장 큰 참여의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결과에서는 변화가능성이 클 것이라 평가되었던 모든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참여의 동기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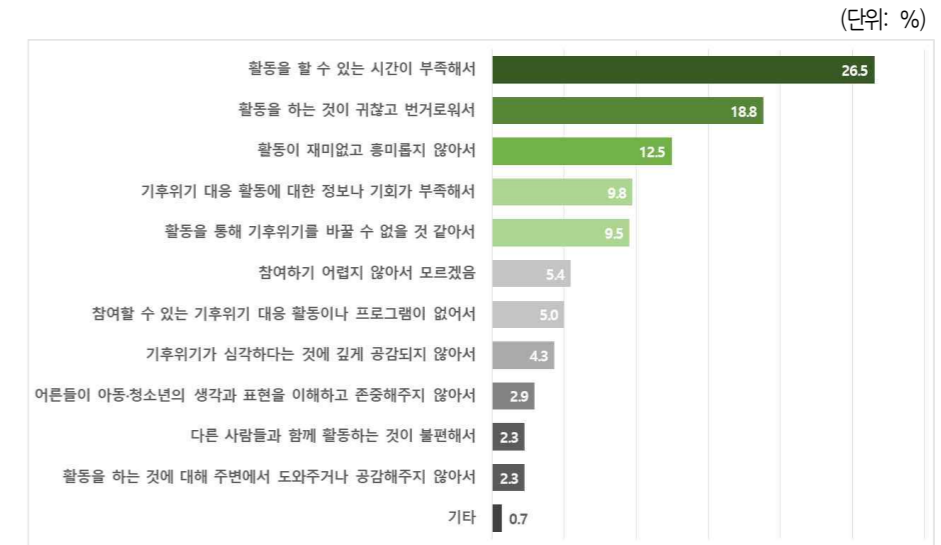


[그림 4-5]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요인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참여의 동기 및 요인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26.5%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신동훈 외,

2023). 다음으로는 ‘활동을 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18.8%, ‘활동이 재미없고 흥미롭지 않아서’ 12.5% 순으로 응답되었다. 기타 응답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0.5%,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지 몰라서’ 0.2%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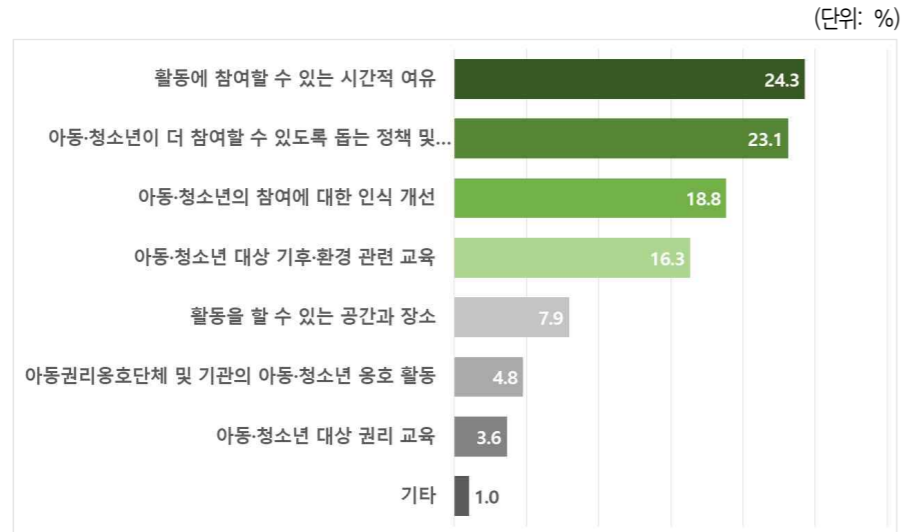
앞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무력감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9.5%의 참여자가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림 4-6]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저해 요인

(2)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은 활동 참여 요인과 저해 요인이 있는 가운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저해 요인 응답과 유사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청소년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및 제도’가 23.1%,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이 18.8%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정부의 지원’ 0.2%, ‘세계적인 분위기의 변화’ 0.2%, ‘본인의 의지’ 0.2%,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제도’ 0.2% 등이 있었다.



[그림 4-7]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필요 사항

본 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로 기타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해당 문항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의견들을 나누주었다. 이를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4-16>과 같다. 필요 사항에서 응답했던 의견을 다시 강조하는 답변도 다수 있었으며, 조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의견을 작성한 아동·청소년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6]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필요 사항(기타 응답)

구분	의견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획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운영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응 활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취합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힘써야 함 · 일상적인 캠페인이나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함 등
기후위기 관련 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방식과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의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함 ·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고려하여 교육이 구성되어야 함 · 유년시절, 유아기부터 환경과 기후위기에 관한 조기교육이 이뤄져야 함 · 활동과 연계된 교육이 필요함 ·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함 등
어른들의 인식 개선 및 참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야 함 ·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아졌으면 함 ·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을 무시하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등
아동·청소년의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함 · 아동이라는 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함

구분	의견 내용
	·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갈 주체로써 아동·청소년이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함 등
국가와 기업 차원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부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등

V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6호」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아동들은 변화의 주체로서 인권과 환경보호에 역사적 기여를 하였다. 인권옹호자로서 이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전 지구적인 환경 피해에 대한 시급하고 단호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최대한 충족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초안 ‘1. 소개’ 中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활동의 의미와 기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후위기 대응활동 실태 조사에 앞서 기후위기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7.83점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51.7%)의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강권(79.4%), 생명권(74.1%), 생존권 및 발달권(61.8%), 놀 권리(46.9%)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6호를 참고하여 정부 및 국가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다른 대응 정책 및 활동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수렴, 기후 변화 취약 집단 보호,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등 아동·청소년에 관한 영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89.4%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441명의 아동·청소년 중 1명을 제외한 440명(99.8%)이 한 가지 이상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동 구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일상적 활동이 68.8%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사회적 활동은 31.3%, 정치적 활동은 15.8%의 경험률을 보였다. 특히 일상적 활동에서는 ‘분리수거하기’(96.1%), ‘텀블러/개인 컵 사용하기’(85.9%), ‘잔반 없이 식사하기’(79.8%)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활동에서는 ‘줍깅/플로깅’(76.2%), ‘환경 관련 교육 및 강의 수강’(58.0%), ‘가족 및 지인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56.2%) 순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활동에서는 ‘환경을 해치는 기업의 제품 사용하지 않기’(38.5%), ‘환경 문제 관련 청원에 서명하기’(21.8%), ‘환경 관련 정책 제언 활동하기’(16.3%)의 경험률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자발성), 또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했는지(주도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서 아동·청소년 자발성은 평균 81.2%, 주도성은 77.5%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정치적 활동의 자발성(86.7%)과 주도성(83.7%)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있어 주요한 개념인 '변화의 도출'을 파악하고자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평균 81.1%로 변화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고(7.83점), 그 중 절반 이상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51.7%), 대부분의 아동·청소년(99.8%)이 한 가지 이상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높은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41.3%)였다. 그러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26.5%), 활동의 번거로움(18.8%), 흥미롭지 않은 활동의 구성(12.5%), 활동에 대한 정보와 기회의 부족(9.8%) 등의 이유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24.3%)와,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정책 및 제도(23.1%),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18.8%) 등의 외부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 외의 필요사항 또한 추가 의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이 변화의 주체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여러 차원의 대응 활동을 하면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활동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그릇된 편견과 인식이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의 작성을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던 김유림 아동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의미와 기여가 인정받고, 기후위기의 논의에 아동·청소년이 진정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북극곰을, 펭귄을, 벚꽃을 눈에 담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난 작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깨끗한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지금 아동의 미래를 담보로 지구를 대출한 거니까요.”

-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김유림 아동이 일반논평 제26호를 위해 제출한 의견 중

김희진. (2019). 존중받고 존중하는 영혼을 위한 아동인권. 푸른들녘: 파주.

배기완 외. (202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532.

박병도. (2013).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환경법연구, 35(2), 61-94.

박정희. (2022).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서 기후재앙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1(5), 1-18.

세이브더칠드런. (2021). 기후위기 속에서 태어나다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국문).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신동훈 외. (20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방안 모색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이소희. (2018). 보육현장중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신정: 서울.

이승윤. (2014).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Fs/QCA 입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요바. (2023). 기후위기 속 여성과 아동의 인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슈 브리프, 66, 1-4.

이재연 외. (2018). 아동권리와 복지. 신정: 서울.

이찬원. (2022). 기후위기의 이해와 대응. 경남발전, 158, 38-55.

이혜원. (201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09집. 집문당: 파주.

전해숙 정하은 최선아. (2021). 기후변화 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연구보고서.

조호제. (2020). 탄소사회의 종말. 21세기 북스.

최규연. (2021). 한국 청소년 기후변화 운동의 함의: 청소년 권리담론의 참신성과 녹색합리주의의 급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7-28.

하지훈·윤순진. (2022).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 참여 경험이 기후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구슬사연구, 13(1), 125-176.

황세영·강경균·김남수·진병주. (2022).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4.

황여정. (201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태와 방향. 2018 한국교육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111-139.

Hart, R.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Sobel, D. (2007). Climate Change Meets Ecophobia. *Connect Magazine*, November/December, 14-21.

UNICEF. (2021).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_____. (2023). How Gender-responsive Age-sensitive Social Protection i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부록]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실태
조사지

기후위기 대응 역할	전혀 하지 않는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9 환경이 아동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역할	①	②	③	④
10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함께 노력하는 역할	①	②	③	④

6.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잠깐 설명!

○ 7번부터 9번까지 문항은 여러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 하나 차근차근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7. 다음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일상적 활동	7-1.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한다.	①	②
2 분리수거를 한다.	①	②
3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본다.	①	②
4 환경과 관련된 기사나 잡지, 책 등을 읽는다.	①	②
5 메일함에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삭제한다.	①	②
6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잔반 없이 식사한다.	①	②
7 양치질을 할 때에 양치 컵을 사용한다.	①	②
8 채식 혹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①	②

(7-1-1~7-1-5. 7-1에서 '경험있음'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추가로 질문)

7-1-1.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7-1-2. 스스로 하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했나요?				7-1-3. 얼마나 자주 활동을 했나요?							7-1-4. 어른들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활동이었나요?				7-1-5. 활동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3개월 1-2회	6개월 1-2회	연 1-2회	1번만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있다	매우 변화시킬 수 있다
()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다음은 아동·청소년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 해 주세요.

일상적 활동	8-1.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줍깅, 플로깅 등 포함)	①	②
2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서 활동한다.	①	②
3 환경과 관련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는 제외)	①	②
4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①	②
5 환경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①	②
6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	①	②
7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①	②
8 환경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다.	①	②
9 환경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①	②
10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한다.	①	②
11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①	②
12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13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①	②
14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한다.	①	②

(8-1-1~8-1-5. 8-1에서 '경험있음'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추가로 질문)

8-1-1.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8-1-2. 스스로 하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했나요?				8-1-3. 얼마나 자주 활동을 했나요?							8-1-4. 어른들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활동이었나요?				8-1-5. 활동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3개월 1-2회	6개월 1-2회	연 1-2회	1번만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있다	매우 변화시킬 수 있다
()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다음은 아동·청소년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 해 주세요.

일상적 활동	9-1.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2 공식적인 환경 보호 단체, 기후위기 대응 단체에서 활동한다.	①	②
3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①	②
4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①	②
5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다.	①	②
6 환경 문제 관련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다.	①	②
7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8 정치인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①	②

(9-1-1~9-1-5. 9-1에서 '경험있음'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추가로 질문)

9-1-1.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9-1-2. 스스로 하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했나요?				9-1-3. 얼마나 자주 활동을 했나요?							9-1-4. 어른들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활동이었나요?				9-1-5. 활동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3개월 1-2회	6개월 1-2회	연 1-2회	1번만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있다	매우 변화시킬 수 있다
()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이 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11.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주세요.

- ①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음
- ② 환경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 ③ 주변 어른들이 시켜서
- ④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지인 등)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 ⑤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⑥ 활동이 재미있어서
- ⑦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 ⑧ 진로나 적성에 도움이 되어서
- ⑨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 ⑩ 기타 (직접 작성:)

12.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주세요.

- 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 ②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정보나 기회가 부족해서
- ③ 어른들이 아동·청소년의 생각과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지 않아서
- ④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에 깊게 공감되지 않아서
- 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 ⑥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서
- ⑦ 활동을 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 ⑧ 활동이 재미없고 흥미롭지 않아서
- ⑨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주변(친구, 가족, 지인 등)에서 도와주거나 공감해주지 않아서
- ⑩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⑪ 참여하기 어렵지 않아서 모르겠음
- ⑫ 기타 (직접 작성:)

13.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아동·청소년 대상 권리 교육
- ② 아동·청소년 대상 기후·환경 관련 교육
- ③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 ④ 아동·청소년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및 제도
- ⑤ 아동권리옹호단체 및 기관의 아동·청소년 옹호 활동
- 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⑦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 ⑧ 기타 (직접 작성:)

14.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

발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웅철
편집인	한유정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화	02-6424-1696
이메일	crnt1@gnk.or.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발행번호	23-사07-103
I S B N	979-11-92636-02-3
